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한다. 우리는 16주 동안 매 토요일마다 해녀에게 수업을 받았다.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멋진 바닷속 풍경을 보는 것보다 쓰레기를 볼 때가 더 많았다. 이로부터 우리의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 바다에는 특정 국가에 책임을 묻기 힘든 쓰레기가 끊임없이 물려온다.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고 제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비치코밍이다. 비치코밍은 바다에서 주운 것들을 이용해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비치코밍을 통해 나오는 쓰레기는 다양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찾고 있다. 우리는 전문가, 예술가와 함께 일하고 있고, 제주도 본토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지키는 운동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 그들처럼 무언에 집중해야 하는지 매번 판단하고 집중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성훈**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후에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문화는 노래와 춤으로 구성, SDG를 춤추고 노래하는 것(Singing and Dancing)으로 이해하는 건 어떨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청년들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나눌 수 있었음. 다름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교류가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핵심적 역량이라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됨.
- 청년들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활동과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분쟁지역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활동을 통해 앞으로 청년들이 평화를 이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줌. 그리고 미술, 음악 등의 문화로 평화의 문화를 건설하는 그들의 긍정적인 기여가 기대됨.

여성 창의성 역량 개발을 통한 미래사회 변혁



| | |
|----|--|
| 좌장 | 한미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
| 토론 | 이기연 우신코리아 대표 이정미 제이엘그린 대표 나경자 씬앤아이 대표 |
| 정리 | 김민재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주임 |

— **한미영** 여성이 창의성을 활용하여 어떻게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이기연** 식용유 정제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화억제장치 등이 있고, 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발명품은 현대 식생활에서 기름을 이용한 튀김요리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환경 오염 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발명품 중 하나인 에어벨트는 튀김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모아 자원화할 수 있어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식용유를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폐식용유 처리에 드는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다.

발명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주부로서 식용유를 사용하여 요리를 할 때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발명을 시작하게 됐다. 아이디어를 실제

발명품으로 만들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초기에는 발명품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으나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트랜스지방이 주목을 받으면서 발명품에 대한 관심도 따라 증가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제품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이 많이 소요됐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의 지원 덕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힘든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성으로서의 끈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정미**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창의성이었다. 발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발견한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지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IMF를 겪으면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느꼈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집중했다. 여기서 소개하는 발명품 또한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이다.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경제력 창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이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발명인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통해 작게나마 이루어 낼 수 있

었다.

— **나경자** 집에서 간편히 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특수카본발열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제품 개발 후 여성기업인으로서 자금 조달이나 마케팅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다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등을 알게 되면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후 무역협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종 기관들을 찾아 다니며 해당되는 지원을 받아 국내 시장은 물론 일본과 영국, 미국으로 활발하게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여성발명인과 기업인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질의응답]

Q. 사업 운영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기업인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이정미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된다. 초기 자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기관 등을 찾아가서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Keywords

여성, 창의성, 아이디어, 발명, 기업인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의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발명'은 과학자나 기술자 등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작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할 수 있음.
- 여성이 가진 주변에 대한 관찰력과 섬세함 그리고 창의력이 결합되고, 정부의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여성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여성의 경제적 가치 창출은 성 평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식 경제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큼.
- 앞으로도 여성의 창의성 개발과 기업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시민교육의 과제



| | |
|------|---|
| 사회 | 강근형 제주대학교 교수 |
| 기조연설 |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
| 발표 | 하영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조일수 충북대학교 교수 변중현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 대런 시우스콧 제주대학교 초빙교수 김현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 정리 | 강병철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

— **허향진** 동아시아 국가들은 번영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은 국가 간 협력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차원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고 있어 국가 간 평화 공존 및 발전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대학들 간의 교류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차세대 지도자들이 학생 교류에서 얻은 경험은 장래에 동아시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

동아시아의 협력은 지구적 시민의식을 지닌 새로운 시민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세계는 한 국가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적 시민의식을 지닌 새로운 시민이 등장할 때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존과 상호협력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과 대학 교육은 지구적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세션은 새로운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국가들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거유산이다. 침략 국가는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여야 하며,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시민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존중, 생명 중시, 민주주의, 환경보호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내용이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유감스러운 과거의 회상보다는 협력을 통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 주고 평화로운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루는 활동에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 셋째, 다양한 문화의 가치 존중을 실현하여야 하며